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 신안군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호평

## 만성질환 장애인 대상 한의약 방문관리 대상자 상태 따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해

신안군 보건소에서는 만성질환을 가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의사와 방문간호사가 함께 가정방문을 통해 한의중재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평소 몸이 불편해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한의상담, 한방침 시술, 한약제제 제공, 건강습관 지도, 혈압·혈당 건강체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문제 증상완화와 합병증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며, 장애상태에 따라 6~12회의 방문을 하게 된다.

신안군에는 현재 18명의 공중보건 한의사, 11명의 방문간호사가 읍면에서 근무하며, 취약계층(만성질환·허약노인·독거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건강지킴이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

폭염이 계속되는 요즘에는 가정 및 경로당을 방문하여 폭염예방 건강교



육, 건강상태 확인, 고혈압·당뇨환자 약복용관리, 건강문제 사례관리·진료

연계 등 대상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강화를 함께 어르신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낙상예방 건강 증진프로그램을 경로당중심으로 지속 운영

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순천시 '치매 안심마을 조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순천시는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순천형 치매안심마을 조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주민 소득 연계 등  
추가 보완 반영 주문  
"치매 친화적 분위기 조성"

이날 보고회는 시장, 업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진행된 조사, 연구 상황을 보고하는 방식으로진

행됐다.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한 방안, 돌봄 시설의 형태 구현과 미래 발전 가능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자료 등을 최종 보고서에 추가 보완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순천시는 치매환자와 가족이 겪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중증환자를 포함한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치매 안심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치매환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마을 주민이 체감하는 치매안심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영암사회복지관 제3기 수강생 모집

여성·다문화·장애인·노인 총 52과목 668명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제3기(9월~11월)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8월 8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모집한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여성·다문화,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 과정으로 과목별 주 1~2회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여성교육 분야로 공예, 난타, 요가 등 총 25과목 283명, 다문화여성 교육으로 비즈공예, 한국어 등 5과목 58명, 장애인 분야로는 재교재방 등 사회재활교육 3과목 30명, 컴퓨터기초, 문해배우기, 체육교실 등 평생교육 11과목 134명이 개설된다.

또 노인분야는 컴퓨터, 스마트폰 활용, 바둑 등 8과목 163명 등 총 4개 분야 52과목을 개설, 668명의 수강생을 방문 접수로 모집하며 자세한 내용은 ☎470-6754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교육생의 재능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에 재능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평생 학습의 효과는 물론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하는데 힘쓰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 나주시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무료 청력검사

㈜소리안보청기 전문가 방문, 어르신 청력 건강 체크

나주시가 운영하는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는 지난 9일 어르신을 위한 무료 청력검사를 실시했다.

이날 청력검사는 ㈜소리안보청기 전문가 방문을 통해,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개인면담 및 청력검사를 진행했으며, 검사 결과 대부분의 어르신이 정상적인 청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됐다.

센터 관계자는 "어르신 모두 정상 결과로 나와 다행스럽고, 기쁘다"며, "앞으로도 센터 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신체 건강 검사와 여가프로그램을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 정신건강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모스쿨

광주광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광주 광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정유란)는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정신건강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모스쿨'을 진행한다.

이번 부모스쿨은 '부모자녀 관계 만들기'를 주제로 국립나주병원 정신과전문의 정하란 과장이 강의를 진행한다. 8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총 4회) 진행 예정이며, 지역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사전에 문자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광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부모스쿨을 통해 자녀공감의 기초부터 청소년 자녀와 친해지는 방법까지 자녀에게 충분한 부모가 되는 길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광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팀 062)710-0140 또는 홈페이지(<http://gsgmcc.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광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울 등 정서문제와 ADHD 등 행동문제도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보다 열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마음쉼터 WEGO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 광주 금호평생교육관

### 책으로 장애인과 소통

광주 금호평생교육관(관장 양주승)이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들이 책을 통해 교육·문화적으로 여가를 활용하여 일상에서 보다 나은 소통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서구장애인복지관'과 '해송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를 지난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으로 12월까지 매주 1회씩 총 18회에 걸쳐 독서지도 전문강사를 파견하고 수업자료 및 활용 도서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책 읽어주기와 다양한 독후활동을 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호평생교육관은 지난 3월 2019년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총 280만원을 지원받아 동그라미 주간보호센터를 찾아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